

완도 툏·다시마 '세계 최초' 친환경 국제인증

(ASC-MSC)

양식어가 11곳 획득...한국, 해조류 국제인증 최다 보유국

완도 양식어가들이 세계 최초로 툏과 다시마 국제인증인 ASC-MSC를 획득했다.

4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지역 툏·다시마 양식어가 11곳이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ASC-MSC'를 새로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툏과 다시마로는 세계 최초이며, 우리나라는 해조류 ASC-MSC 인증 최다 보유국이 됐다.

앞서 4월 완도 전북 양식어가 26곳이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을 획득(세계 최다)했다.

ASC(세계양식책임관리위원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는 해양 자원의 남획과 무분별한 수산 양식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2010년에 만들어졌다. 해조류 인증의 경우 ASC와 MSC(해양책임관리회)와의 공동 작업으로 'ASC-MSC'라고 표기한다.

ASC-MSC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수질, 생태계, 항생제 사용 등 환경부터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까지 보증을 해야 한다.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많은 소요 비용, 장기간의 심사 등으로 인해 획득이 쉽지 않다.

완도군과 완도친환경수산물협동조합은 전문가



툏



다시마

들과 협의를 거쳐 해양쓰레기 수거, 인증에 필요한 환경과 사회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 해양환경(퇴적물·수질 조사)에 대한 과학적 조사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완도군은 해조류 인증 품종 확대를 위한 ASC-MSC 2기 인증을 추진 중이다. 또 전북 3기 ASC 인증 희망 어가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수산물에 대해 차별화를 두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국내 소비 증대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완도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 ASC-MSC 관계자들이 완도 툏·다시마 양식어장에서 현장 심사를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11월 해양치유식품 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다내음 가득 품은 수산물에 생각한다. '영양의 보고' 굴(석화)이다.

완도군은 '11월 해양치유식품'으로 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완도에서는 신지면 석화포 앞바다와 고금면, 약산면에서 굴 양식을 하며 연간 500t 정도 생산하고 있다. 완도 연안은 맥반석으로 형성된 청정해역으로 수산물의 맛과 향이 좋고 특히 굴은 알맹이가 크고 탱글탱글하다.

굴은 5~8월 산란 후 가을에 살이 올라 몸집이 통통하고 유백색을 띤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제철이다.

여름보다 겨울에 동물성 다당류이자 몸속 에너지 역할을 하는 글리코겐 함량이 10배 이상 많아 이맘 때쯤 맛과 영양 모두 뛰어나다.

특히 100g당 75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린다.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 아미노산, 각종 미네랄 등이 풍부해 남성에게는 체력 회복에 좋은 건강 식품, 여성에게는 피부 미용 식품으로 인기가 많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다기능 부잔교 11곳 설치

올해 고군면 가계항 등...어업인 작업여건 개선

진도군은 올해 고군면 가계항 등 11곳의 항·포구에 복합다기능 부잔교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는 부력을 이용해 높이를 조절하는 시설물로 주로 조석간만의 차가 큰 수역에서 소형어선의 어획물 양육과 승·하선 확보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부잔교는 해수 높이에 상관없이 배가 수시로 접안이 가능하고 썰물 시 부잔교를 이용하면 육지까지 어업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부잔교는 어항기능 회복과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뿐만 아니라 날로 고령화 되어가고 부족해져가는 어촌 노동력 해소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시설물이다.

진도군은 올해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가계항 등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11대의 설치를 마쳤다.

진도군은 어선 계류시설이 부족한 항·포구에 조수간만의 차와 재해 취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복합다기능 부잔교 85대를 설치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방파제에 직접 연결해 소형 선박이 쉽게 배를 접안할 수 있도록 선박 높이에 맞춰 설치했다"며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어획물 하선 등 어항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소형어선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신안군 '행·복·문' 가족센터 건립

<행정·복지·문화>

압해읍에 129억 들여 내년말 완공

신안군 압해읍에 행정·복지·문화를 아우르는 가족센터(조감도)가 들어선다.

신안군은 지난 3일 압해읍에서 박우량 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사회단체·유관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가족센터' 착공식을 했다.

가족센터는 압해읍 학교리 588-7번지 일원에 사업비 129억원(국비 50억원, 군비 72억원)을 들여 내년 12월 완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대지면적 약 1만3188㎡, 연면적 3403㎡, 지하 2층~지상 1층 규모로 건설된다.

건강가정·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압해읍사무소(주민센터), 어린이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일자리교육실, 키즈카페 등 다양한 복지문화 시설이 들어서는 행정·복지·문화 복합센터로 건립된다.

현 압해읍사무소는 문화광장과 함께 숲이 있는 공원,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

리는 군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압해읍은 지난 2012년 면에서 읍으로 승격됐으며, 신안군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다. 압해대교, 김대중대교, 천사대교에 이어 해남 화원반도를 잇는 국도77호선 다리 건설까지 예정돼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복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전국 최고의 행정·복지·문화 복합센터로 건립할 계획"이라며 "원스톱 복지·행정 통합서비스 제공과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가족복지 서비스 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사랑상품권 변신 중

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내년 카드·모바일 상품권 발행

해남군은 내년 카드와 모바일 등 전자상품권 도입을 위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통합관리시스템은 상품권 판매 및 재고 현황, 구매자와 가맹점의 등록 관리, 환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개인정보 인증을 통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부정유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해남사랑상품권은 지난달 28일부터 5% 상시 할인율로 판매를 재개했다.

판매 재개 첫날 1억4000만원의 일반판매액을 달성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 순조로운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시안 제작, 모바일 QR 키트 제작, 모바일 가맹점 모집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 카드형 상품권, 4월 모바일형 상품권을 출시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12월에 다가올

'광주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

성과보고전시

제조산업에 디자인을
불어넣는

양산화지원

마케팅지원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아름속 빛나는 지원,
'산업화디자인프로젝트'가
함께 합니다

광주광역시 gidp 광주디자인진흥원
GWANGJU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